

회원사소개

現代엔지니어링을 찾아서



〈현대 석유화학단지〉

한국 최대기술용역회사, 국제적성기도 높아

1974년 설립 세계적인 엔지니어링 회사로

1974년 2월 설립한 현대엔지니어링은 세계적인 엔지니어링회사로의 도약을 목표로 17년 동안 국내외에서 많은 기술적 경험을 축적하여 왔으며 중동, 동서남아, 아프리카 등 세계 31개국에 진출(현재 10개국에서 프로젝트 수행중)하여 기술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1974년말부터 기술의 해외진출을 위해 ADB, IBRD, USAID, UNIDO, UNDP, UNESCO, WHO, FAO 등에 기술용역업체로 등록하는 한편, 건설부에 측량업등록(76년 8월) 및 해외건설용역업등록(76년 9월)을 마침으로써 업무의 영역을 넓혀 나갔다. 1980년 11월에는 정부의 중화학투자조정령으로 한라엔지니어링을 흡수합병하였으며 1981년 11월에는 환경청에 수질오염방지시설업체로 등록, 한강등의 수자원보호사업에도 진출하게 되었다.

엔지니어링의 경쟁력은 곧 기술축적에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일찍이 1976년부터 자동製圖장치를 포함한 컴퓨터시스템을 도입, 그동안 100여건의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종설계에 활용, 기술을 축적하여 왔으며 또한 해외기술의 존도를 탈피하고 기술의 자립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2년 4월에 부설현대기술연구소를 설립, 병역특례연구기관

으로 지정되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주로 박사 및 석사로 구성된 35명의 전담연구요원이 시스템엔지니어링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그동안 3건의 정부특정연구개발과제를 비롯하여 74건의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엔지니어링 기술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6개사업본부, 1천400여명 고급인력 활약 원자력분야 실적도 두드러져

현대엔지니어링은 현재 6개 사업본부(기전, 화공, 해양플랜트, 토목, 건축, 산업시스템), 해외영업본부, 관리본부, 기획실, 전산실, 현대기술연구소, 7-INNOVATION 추진본부의 조직에 기술사 85명을 포함 1,400여명의 고급기술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수행한 프로젝트를 살펴보다도 현대엔지니어링의 기술축적정도를 알만하다. 국내에서 TURN KEY 방식으로 평택 화력발전소와 삼천포 화력발전소 건설의 기술용역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중동의 미수라타발전소, 알무사이브 발전소, 마카타이프 발전소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발전소건설을 독자적인 국산기술로 수행함으로써 발전소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그 기술을 인정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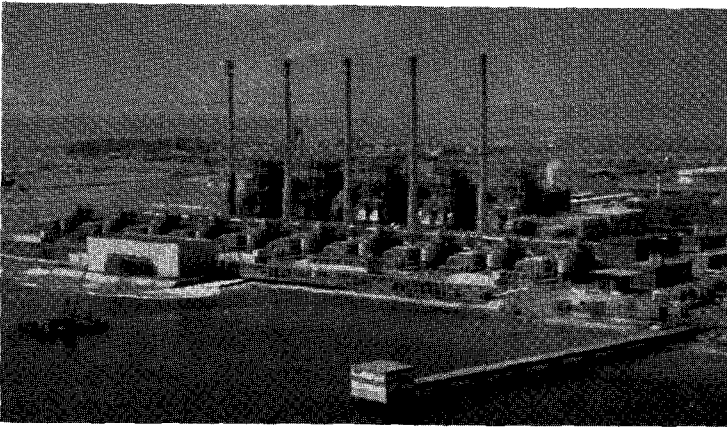
또한 석유화학분야로서 한국카프로락탐(주) 울산공장 확장 부대시설공사, 극

동석유 6만 BPSD상세설계, 유공 에틸렌 플랜트, 호남정유 증설공사, 유공 POSM 사업 등 국내플랜트 사업과 현대석유화학 관련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난지도 하수처리장, 수도권우편물 집중처리국, 태국 대사관 건설사업의 엔지니어링 역무를 수행하였으며 원자력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85년 국내민간업체로서는 처음으로 해외에서 ADB차관사업인 네팔 5차 전력사업의 건설용역을 수주한 이래 네팔 6,7차 전력사업, 파키스탄 스몰댐, 네팔의 순사리모랑 관개사업, 아시아개발은행의 개도국산업연구, 네팔의 1,2차 도로개선사업, 피지의 시가도카교량 건설공사 등 지금까지 9건의 해외건설업을 수주하여 우리나라 전체실적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동서남아를 중심으로 해외수주를 확대하는 한편 그룹의 북방진출과 관련하여 소련, 중국 및 동구권의 수주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남극의 세종기지건설 성공적 마무리

많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남극 세종 과학기지 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준공한것은 88년 2월이었는데 이를 계기로 남극 진출국들로부터 기술의 우위성을 인정받았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버마정미소, 필리핀 NEPA변전소, 부탄



〈Misurata 발전소 및 담수공장/발전85MW×6기, 담수10,500톤(日)×3기〉

Integrated Computer Engineering 시스템 구축서둘러

발전소·담수시설등 중공업분야 진출 활발

상하수도 플랜트, 인도의 ONGC 해양플랜트, 파키스탄 SNGP 보일러, 인도네시아 IKPP 열병합 발전소,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트 GPP 공사, 인도네시아 미원 열병합 발전소, 스리랑카 변전소 건설사업 등의 플랜트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국내기업중에서는 항상 최고봉에서 있고 국제적으로는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Engineering전문 주간지인 ENR(Engineering News Record)지가 선정한 세계 200대 엔지니어링업체 리스트(미국포함)에 83년부터 매년 100위권안에 랭크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76위에 랭크되었다.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이들의 기술연마는 늦추어지지 않는다. 기술개발과 교육훈련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 한예로 고급기술인력을 자체양성하기 위하여 90년 1월부터 사내대학원(엔지니어링 아카데미)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또한 엔지니어링 아카데미는 2년(6학기)과정으로 현재 기계공학, 전기공학, 화학공학, 구조공학등 4개학과가 개설되었고 1기생및 2기생 총 100여명이 수강하고 있다. 강사의 구성이 과학기술원을 비롯한 국내유수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료사 사내석사학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 덕택인지 부설기술연구소에서 90년에 독자 개발한 환경기술인 혐기성여상법(嫌氣性 濃床法)에 의한 고농도 유기폐수처리기술은 국내를 비롯하여 미국및 일본에 특허를 출원하게 되었다.

또한 축산폐수 종말처리시설 기본설계, 해태산업폐수처리 시설공사, 仁實 치즈협동조합 폐수처리 시설공사등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신기술분야의 개척에도 실적이 두드러지고 있다.

최신 컴퓨터시스템 기술자료실, 실험실등 원비 7개 이노베이션 운동전개

이제 현대엔지니어링은 한국최대의 기술용역회사로 최신 컴퓨터 시스템 및 기술자료실, 실험실등을 완비하고 원자력을 포함한 발전등 에너지분야, 정유 및 석유화학분야, 산업공장분야, 환경분야, 토목분야, 건축분야, 해양분야, 공장자동화분야, 정보분야등 각종산업시설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해 새로운 기술개발과 경제적인 설계, 그리고 책임있는 서비스를 목표로 전문화된 기술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국내외의 기술용역 업무수행을 주도하는 국제적 엔지니어링 회사로 성장하고 있으며 현대그룹 기술축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00년대 선진엔

지니어링회사로 진입하기 위해 91년부터 2년간에 걸쳐 기술력과 생산성을 각각 50%씩 향상한다는 목표로 7-INNOVATION운동(경영, 생산성, 기술, 전산화및 자료관리, 원가절감, 의식구조 및 근무분위기, 기업이미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각 분야의 설계표준과 설계자료, 경영관리 그리고 사무자동화등을 하나로 묶어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고 자동화하는 ICAE(Integrated Computer Aided Engineering)시스템 구축을 91년부터 5년간에 걸쳐 추진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비로서 선진국 엔지니어링 회사로 진입하게 된다.

〈「이리크」알무사이브火力발전소, 320MW×4기〉

